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PAPER AVALANCHE

가제 : 엄마는 수집 광

저자 : Lisa Williamson

출판사: David Fickling Books

발행일: 2019년 1월 3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북셀러(The Bookseller) 1월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 - “감동적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 강렬하고 쉽게 읽히는 책”

\* 타임즈(The Times) 선정 “2019년 가장 중요한 아동서” (Biggest Children Book of 2019)

좋은 친구 많이 사귀기, 남자친구 만들기, 가끔은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도 하고 수다 떨기까지,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과 아예 담을 쌓고 사는 로스노우는 집 주소가 두 군데 있다. 하나는 누가 갑자기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거나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야 할 일이 있을 때 ‘여기가 우리 집이야!’라고 알려주는 가짜 집이고, 하나는 엄마와 단 둘이 사는 진짜 집이다. 우연히 집 근처까지 함께 온 친구가 화장실 좀 써도 되겠냐는 지극히 정상적인 부탁을 해도 로가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절대 집안에 들이지 못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엄마’라는 호칭대신 ‘보니’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지독한 쓰레기 수집 광이기 때문이다. 현관부터 시작해서 집안 구석구석, 뒷마당까지 로의 집은 보니가 끌어 모은 쓰레기로 꽉 차있다. 보니가 매일 우두커니 앉아 있는 낡은 안락의자 하나 정도의 공간과 절대 문을 열지 못하도록 로가 철저히 단속한 로의 작은 방만 빼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빈 공간은 전부 쓰레기가 들어 차 있다. 하지만 로가 두려워하는 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집에 어떻게 사느냐는 사람들의 놀림이나 비난이 아니었다. 누가 봐도 기겁할 만한 이 광경을 누가 보면 분명 해결하려고 할 테고, 어디에 신고라도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점검’을 나올 것이 뻔하고, 그럼 보니는 로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아빠와 이혼한 후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보니는 딸까지 잃고 나면 절대 제 정신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보니가 ‘수집’하는 쓰레기는 주로 종이류였다. 신문, 낡은 책, 광고지, 카탈로그, 영수증, 계산서, 편지, 엽서, 전화번호부, 달력, 수첩, 빈 페이지가 몇 장밖에 안 남은 온갖 노트들, 심지어 기차표와 편지봉투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집은 이런 종이들로 메워졌다. 인터넷

으로 보니 같은 수집 광들에 관한 글을 심각하게 조사해 본 로는 그나마 종이라서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쓰고 난 화장실 휴지며 분비물을 ‘수집’하는 최악의 경우도 있는데, 뒷마당에 쥐가 들끓어서 대문 열기가 무섭고 ‘손가락에 잡힌 담배꽂초가 종이에 옮겨 붙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건 아무 것도 아니야.’ 로는 속상할 때마다 애써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 열네 살인 로가 언제까지 사람들 눈에 달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사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배우인 엄마에게 물려 받은 예쁜 외모 탓인지, 아니면 어느 여자아이들처럼 소란스럽지 않아서인지 학교에서 남자 아이들이 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다. 통장은 점점 바닥을 보이는데 콧대가 높아 어지간한 배역은 맡으려고도 하지 않는 엄마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쓰레기만 모으고 이러다 멜라니라는, 로의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들지도 않는 여자와 재혼한 아빠에게 보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점점 높아지던 어느 날 로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다. 바로 옆집에 이사온 새 이웃, 그리고 바로 옆 자리에 새로운 짝이 된 특별한 친구가 그 출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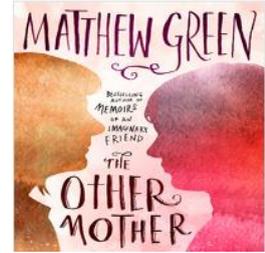
10학년 첫 학기를 맞아 새로운 교실에서 탤비의 이름을 들었을 때만 해도 로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2년도 더 전에 탤비는 같은 학년 전체가 모인 강당에서 교장선생님이 울먹이며 불렀던 이름이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양으로 진단 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교장 선생님은 탤비가 이제 더 이상 함께 공부할 수 없다고 모두에게 알렸다. 그런데 그 탤비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하고 많은 아이들 중에 로의 짝이 된 것이다! 게다가 작고 가냘픈 외모와 달리 강단 있고 추진력도 대단한 탤비는 로의 옆자리에 앉은 첫날부터 아주 친근하게 먼저 다가왔다. 친한 친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도 서로 털어놔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 동안 베스트프렌드 같은 건 만들지 않으리라 다짐해온 로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남동생, 아빠와 함께 로의 옆집에 이사온 노아도 갑자기 로에게 성큼 다가온 또 한 명의 친구였다. 사실 노아가 이사 오던 날, 멀리서 지켜보던 로는 첫눈에 반했지만 그 감정을 누르려고 애쓰는 중이었는데 노아는 로 역시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친근감을 느끼며 친해지려고 애쓴다. 굳은 결심과 달리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이 두 친구와 자꾸 친해지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 로는 힘들게 유지해온 외부 세계와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질수록 엄마를 향한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뜻밖에 다가온 친구들처럼 로가 예상치 못한 좋은 사람들이 어쩌면 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다.

엄마를 지킬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에 혼자 끙끙 앓던 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한 힘을 가슴 아프게 깨닫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린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리사 윌리엄슨(Lisa Williamson)은 미들섹스 대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공연과 TV에 출연하는 배우로 활동해 왔다. 성적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클리닉에서 임시직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THE ART OF BEING NORMAL』로 워터스톤 아동도서상 YA 부문을 수상했다. 그 밖에 『All About Mia』 을 썼다.

제목 : THE OTHER MOTHER  
가제 : 바뀐 엄마  
저자 : Matthew Dicks  
출판사: Atom/Little, Brown UK  
발행일: 2019년 3월  
분량 : 약 295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Memoirs of an Imaginary Friend』의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바뀌어버린 소년을 주인공으로 들려주는 독특한 성장 소설**

멀쩡히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면? 마이클에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달걀 부치는 냄새가 솔솔 나는 부엌으로 들어선 순간, 마이클은 엄마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챈다. 하지만 먼저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수백 번은 읽은 좀비 동화책을 읽고 있는 남동생 찰리나 겨우 아홉 살이지만 스포츠에 관심도 많고 공 던지는 실력도 식구들 중에 가장 좋은 여동생 줄리아는 전혀 그런 기미를 못 느낀 눈치였다. 혼자 눈이 휘둥그렇게 커진 마이클은 침착해지려고 애를 썼다. 일주일에 세 시간씩 만나는 상담 선생님의 조언도 떠올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손목 스냅을 활용해서 스크램블 에그를 멋지게 만들어내는 솜씨나, 대충 틀어 올린 머리 모양, 심지어 목소리까지 영락없이 진짜 엄마를 빼닮은 웬 낯선 여자가 딱 하니 집안에 들어와 엄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지켜보자니, 차오르는 분노를 막을 수가 없었다. 가운 하나만 덜렁 걸친 채로 부엌에 들어선 새아빠 글렌까지 늘 하던 대로 엄마 곁에 꼭 붙어 미소 짓는 꼴을 보니 마이클은 속이 활활 불타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다들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여자는 엄마와 저렇게까지 비슷할 수가 있을까? 마이클은 식탁 위에 올라온 음식을 싹 내동댕이치고 당장 엄마를 돌려놓으라고 고향치고 싶었지만 겨우 억누른다.

사실 마이클은 상담 선생님이 즐겨 쓰는 표현 대로라면 ‘충동적인’ 감정, 특히 분노를 쏟아내는 문제 때문에 몇 년째 상담을 받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글렌이 새아빠로 집에 들어온 뒤에 시작된 문제였다. 상담 선생님은 문제라는 표현 대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이클은 짜증나게 하는 스쿨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날리고,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계산대에 놓인 금전출납기를 번쩍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걸핏하면 아이들과 주먹다짐을 해서 거의 매주 징계를 받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왜 이런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뭔가 마음에 안드는 일이 생기면 발가락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뜨거운 증기가 차오르듯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마이클도 다 느낄 수 있었다. 그럴 때 숫자를 세고, ‘하지 마’라는 짧은 문구를 반복해서 되뇌는 등 그 뜨거운 울분이 주먹으로, 발길질로, 고향으로, 자학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엄마는 셋이나 되는 아이를 키우느라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한

다며 고된 일도 마지 않았고, 그런 엄마 대신 장남인 자신이 두 철없는 동생을 도맡아 돌보아야 하고, 멍청하고 무능력한 글렌이 눈에 될 때마다 너무 빨리 떠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치니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나마 옆집에 사는 새라가 그런 마이클의 심정을 잘 헤아려주었다. 집에 있는 여자가 엄마가 아니라는, 남에게 차마 말하기 힘든 그 사실을 마이클이 털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도, ‘노란 봉투’의 비밀을 이야기한 사람도 새라였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둘 사이에 친구 사이를 넘어선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한 어느 날, 새라는 마이클에게 이상한 소리를 했다.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발음하기도 힘든 병명이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늘 붙어 다니는 친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굳게 믿는, 일종의 망상 증상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당황한 마이클에게 새라는 이런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으며, 얼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울먹였다. 나보다 내 엄마를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어린 찰리와 줄리아는 아직 초등학생이라 깜빡 속을 수 있고, 글렌이야 같이 산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멍청이라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 왜 새라는 믿지 않을까?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마이클은 큰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새라는 ‘노란 봉투’가 원인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꺼낸다. 아빠가 죽고 장례식을 치른 뒤 2주 정도가 흐른 어느 날, 틈만 나면 차고에서 뭔가를 똑딱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던 아빠와 곁에서 연장을 건네며 신기한 눈으로 구경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이클이 차고를 서성이다 찾아낸 그 봉투에는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다. 쓴 사람은 아빠, 받는 사람은 엄마였는데 마이클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왜 새라는 이 편지가 마이클의 망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마이클은 아빠가 차고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엄마의 말이 어찌면 그 편지 내용처럼 새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음을, 그렇게 중요한 진실을 숨긴 사람이 절대 엄마일 리 없다는 생각으로 흘러갔음을 서서히 인지한다.

엄마가 바뀌었다는 자신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 계속 혼자 방황하던 마이클은 결국 ‘가짜 엄마’의 두 눈을 똑바로 보며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한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던 가짜 엄마는 눈물을 쏟으며 마이클을 설득하려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온 새라의 도움으로 겨우 마이클이 겪어온 상황을 이해한다. 그리고 마침내, 아빠가 차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어 숨겨왔다는 사실을 털어 놓는다. 어린 소년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 앉은 슬픔과 고통이 불러온 영동하지만 가슴 아픈 변화를 통해 가족과 우정, 기억의 의미를 그린 인상적인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매튜 디크스(Matthew Dicks)는 중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등 전 세계 20개국에 판매된 베스트셀러 『Memoirs of an Imaginary Friend』를 썼으며, 그 외 『Something Missing』, 『Unexpectedly』, 『Milo』, 『The Perfect Comeback of Caroline Jacobs』 등도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록 오페라 <The Clowns>, 뮤지컬 <Caught in the Middle>과 <Sticks & Stones>를 쓴 각본가이며 만화책 Double Take을 발표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교사, 블로거로도 활동 중이다.